

가사문학 속 남성 및 여성 생애 인식의 차이와 즉자적 · 대자적 의식*

이 민 규**

목 차

- I. 서론
- II. <남자가>, <남아가> 속 소비적 주체로서의 남성 생애와 즉자적 의식
- III. <여자가> 속 여성 생애와 복속의 자발성
- IV.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 속 이중의 부정과 대자적 의식
- V. 결론

국문초록 | 본고는 가사문학에서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가 어떻게 인식되고 서술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자가>에서 남성은 유교적 출처론에 근거해 사회적으로 출세하며 소비와 유희의 주체로 표현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반대로 남성이 사회와 국가의 온전한 소유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72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7091721)

** 李岷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sansamkr@naver.com

투고일: 2023. 5. 31. 심사완료일: 2023. 6. 15.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79>

것이였다.

반면 <여자가>에서 여성은 어떠한 사회경제사적 변화에 따른 생애의 변화를 서술하지 못하는데, 이는 여성이 사회와 국가에서 배제된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남성 작자가 지었기 때문에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를 비교하면서도 여성 생애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서술하기보다는, 그저 여성이 남성에게 복속해야함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에서 여성 화자는 비로소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 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자기활동성의 실상을 자각하고, 이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여성이 남성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는 남성만이 대접받는 사회와 세계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이중의 부정이야말로 가사문학 속 여성 생애를 다루는 대자적 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남자가, 여자가,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 규방가사

I. 서론

본고는 가사문학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생사가 어떻게 인식되고 다르게 서술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가사문학에서 표출된 여성과 남성의 인생사에 대한 반응에는 분명 편차가 있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여성이 그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유교적 규범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주지시킨다면, 여성의 경우, 남성의 인생사를 의식하면서 것처럼 될 수 없음을 부러워하거나 환탄한다. 여성과 남성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사가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신분 차이를 넘어서, 평생을 걸쳐서 종사하는 노동의 차이, 참여하는 활동의 차이, 노동과 활동 속에서 겪는 경험의 차이, 축적된 경험이 조성한 인생과 세계관의 차이를 낳는다. 성별의 차이는 신분 차이, 계급 차이보다도 더욱더 문화적 자아와 인간을 규정하는 존재론적 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변증법적 전회가 발생한다. 가사문학 속에서 남성은 일반

적으로 사회적 출세가 가능한 자신의 생애를 긍정하면서, 그 인생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받고 근면하게 행동해야함을 강조한다. 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자신을 간주한다. 남성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일상이 여성의 노동에 의해서 지탱됨을 인지하지 못하며, 여성의 인정이 있어야만 자신이 지아비이자 가부장이 될 수 있음도, 자기활동성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한다. 즉 이 남성의 주인의식이란 즉자적이다. 반면 가사문학 속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의 인생사를 인식하고 술회하면서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처지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도 스스로 남성에게 맞춰줘야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삶조차도 스스로 타자화, 대상화시키기도 한다. 가사문학 속 여성의 자의식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주인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가사문학 속 여성의 자의식이 대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남성처럼 여성이라는 타자를 배척,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이라는 타자를 의식하고 타자와 관계되어 자신을 규정하게 하기 때문에, 동어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자기 규정인 즉자적 의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동을 통해서 관조하고 성찰하는 대자적 의식에 가까워지는 것이다.¹⁾

1) ‘즉자적’, ‘대자적’이라는 철학적 개념어의 의미는 헤겔, 들뢰즈, 사르트르마다 다르다. 헤겔에게 즉자적이란 주관적이고 감각적이며 고립적인 것이며, 대자적이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의식적인 것이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주창하며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이 사물을 소유했다고 믿는 주인보다 사물을 생산하며 물질과 현실, 세계의 연결을 자각하는 노예가 주체로 거듭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헤겔의 견해, 청년 헤겔주의는 곧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하며 현실과 세계와 매개되는 노동자가 자본가처럼 소유를 갈망하는 즉자적 계급에서 노동과 자본제를 의식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각성해야한다는 마르크스주의로 이어진다. 한편 사르트르는 ‘즉자적’, ‘대자적’ 개념어를 그것인 바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바의 것인 방식인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존재인 대자적 존재로 거듭나는, 실존을 논하기 위해서 이용했다. 들뢰즈는 차이라는 개체화는 즉자적이며, 반복이라는 생산은 이 개체화의

가사문학에서 남성의 일생을 정리한, 남성의 자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남자가>가 있으며, 여성의 일생을 정리한, 여성의 자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여자가>가 대표적이다. <남자가>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구수영의 연구²⁾, 박연호의 연구³⁾, 이상원의 연구⁴⁾, 정인숙의 연구⁵⁾가 있다. 구수영의 연구가 <남자가>를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고, 박연호의 연구는 조선후기

차이를 인지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며 생산되는 영겁 회귀가 대자적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와 들뢰즈 모두 헤겔의 개념어를 빌리며 그에게 빚지고 있다. 다만 본고는 가사문학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타자성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또한 노동과 출세를 포함한 사회적 생애의 틀에서 이를 인식하는지 등을 논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사르트르나 들뢰즈의 ‘즉자적’, ‘대자적’ 개념어보다도 청년 헤겔주의에서 이용되는 개념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헤겔의 자각, 각성이라는 용어는 깨달음, 대오(大悟)와는 다르다는 지적, 내재적 비판을 언급한 지적도 있었다. 이 지적들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철학이 수용되면서 오성(悟性)이 번역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미 이 논쟁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동양의 사상사에는 있었다. 대승(大乘)에서 선(禪)으로, 대승이 중국화되는 사상적 과정에서 지각을 각성으로, 가능성을 본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근본적이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원론보다 일원론적이며 순수한 성악설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깨달음을 통한 현세적 실천을 강조하는 동양의 사상사에서 지각과 각성은 때로는 혼용되거나 광의화, 치환되기도 하며, 그 혼용과 광의화, 치환이 오히려 더 사상적 발전을 이루게 한다. 후술하겠지만 본고도 그 치환을 지향한다. 또한 헤겔 본인도 정확한 의미 탐색에만 탐닉하는 논의의 양상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은 어떻게 해야 알아차릴까? 그들의 눈앞에서 산산이 부셔서 그 조각들을 그들의 손으로 움켜쥐게 해야 한다네.”(Clark Butler, Christiane Seiler, Hegel: The Letter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p. 29.) 물론 이 부순다는 표현도 헤겔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며, 후대에 정형화됨을 감안해야 한다.

- 2) 구수영, 「男子歌攷」, 『논문집』 8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 3) 박연호, 「<남자가>에 제시된 조선후기 중간계층의 삶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2008.
- 4)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 5) 정인숙, 「<남자가>에 나타난 ‘기남자’의 일생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상업문화와 유흥문화의 발달 속에서 남성의 생애가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는지를 조명했으며, 이상원의 연구는 이본 <남아가>를 살피며 조선후기 중간계층의 선망이 담겨있음을 밝혔다. 정인숙의 연구는 <남자가>가 여성들에게 향유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⁶⁾ 이는 곧 이 작품이 여성들이 남성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줬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가>에서는 남성을 소비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인으로서 바라봄으로써, 그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여성의 대자적 의식 또한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엄밀히 말하자면 가능성으로서만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⁷⁾

하지만 반대로 여성의 생애를 다룬 가사 <여자가>에서는 여성을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사회의 노동자로서 규정한다. <여자가>는 「사군은곡(思君恩曲)」, 「초동가(樵童歌)」, 「충신가(忠臣歌)」, 「열녀가(烈女歌)」, 「효자가(孝子歌)」와 함께 『철성문고(鐵城文庫)』에 실려있는데, 비단 내용을 보면 철원지역만의 특이한 지역성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가사 노동자로 한정짓는 범용성을 갖고 있다. 여성에게 가사 교육을 제공하는 여러 규방가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즉 <남자가>에서의 남성 생애 인식이 출처론이라는 유교적 전형성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다면, <여자가>에서의 여성 생애 인식이란 여필중부라는 유교적 전형성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남자가>가 비록 남성 위주의 생애를 다룰지라도,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적 성장과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적 생애를 반영하고 있다는 변화상들을 담고 있다면, <여자가>에서는 더 수구적인 태도와 시각에 머물러있다.

6) 위의 연구, 277쪽.

7) <남자가>의 이본으로는 구수영본 <남자가>, 박연호가 소개한 장서각본 <남자가>, 이상원이 소개한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가 있다.(정인숙, 앞의 연구, 2013, 261쪽.) 이 중 장서각본 <남자가>와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가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남성 생애를 잘 구현했다고 보기에 본고는 이 장서각본 <남자가>를 <남자가>로,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를 <남아가>로 호칭하며 인용하고자 한다.

또한 <남자가>에서의 남성의 생애란 여성의 생애로부터 독립되어있다면, <여자가>에서의 여성의 생애란 남성의 생애와 대비시키며 결부되어있다는 것이다. <여자경계가>, <여자소회가>, <녀즈훈계라> 등에서는 여자로서 태어났으니 시집을 가서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출가한 후에 시집살이를 견디며 어떻게 부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등의 여성의 생애를 남성의 생애와 비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여자가>에서 여성의 생애는 오로지 남성의 생애를 먼저 논해야만 논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독립적이거나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여성의 생애란 남성의 생애와 대비되어야만 하며, 그 열등성이 변별되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여자가>에도 한계는 있는데 남성의 생애를 부러워하기만 할 뿐, 남성의 생애와 여성의 생애를 구분짓는 경계를 그대로 준수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자자탄가>, <여자탄식가>에서는 <여자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애를 남성의 생애와 대비되는 것으로, 즉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그리지만, <여자가>와는 달리 여성의 생애가 남성의 생애보다 더 열등하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고 한탄하며, 여성 작자층과 향유층이 그대로 자신의 젠더적 정체성을 자각한다. 주인인 남성의 생애로부터 생산자인 여성의 생애가 독립적이지 못할 때에, 하지만 그 독립적이지 못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자각할 때에 비로소 여성의 자기 생애에 대한 인식은 대자적 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앞에서 <남자가>를 논하면서도 살펴보았듯이 남성의 생애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사적 변화와 맞물려 다르게 서술된 반면, <여자가>, <여자자탄가>, <여자탄식가>에서의 여성의 생애는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고답적인 전형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회경제사적 변화란 기본적으로 그 사회경제적 활동의 주체, 소비의 주체인 남성에게만 삶을 살면서 경험되는 현상일 뿐, 그 저변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여성에게는 자신이 종사하는 노동의 형태가 가사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경험되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여성이 소비의 주체로서의 경험을 드러내는 가사문학 작품들도 있지만, 그 작품들은 여성의 생애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여자 자탄가>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이재수의 연구⁸⁾, 최규수의 연구⁹⁾, 최상은의 연구¹⁰⁾가 있다. 이재수의 연구와 최규수의 연구가 <여자 자탄가>에 대한 해제, 기본적인 어의 분석 등을 통해서 <여자 자탄가>를 학계에 소개했다면, 최상은의 연구는 <여자 자탄가>에서 여성의 탄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하였다. 다만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들을 따르면서 이 <여자 자탄가>에서 드러난 여성 생애가 다른 가사 작품들에서 나타난 남성 생애, 여성 생애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리하여 여성이 남성을 의식하며 자기 생애를 인식하고, 그 의식이 어떻게 타자를 통해서 자신과 대면하는 대자적 의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본고는 살펴보고자 한다.

전근대와 근대 사회가 남성=소비자 / 여성=생산자=노동자로 무조건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생애를 다루는 일상문학인 가사문학에서는 이 구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¹¹⁾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시장에서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학인 가사문학에서 이 구도가 강하

8) 이재수, 「女子 自歎歌 研究 : 比較的 考察을 中心으로」, 『동양문화연구』 2,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5.

9) 최규수, 「<女子自歎歌>의 資料的 實相과 特徵的 面貌」,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10) 최상은, 「조선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2, 한민족어문학회, 2018.

11) “전근대와 근대 사회가 남성=소비자 / 여성=생산자=노동자로 무조건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회경제적 시각에 의한 양분으로 남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 규방가사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규방가사 뿐만 아니라 본고가 잡가나 민요까지도 다룬다면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좀 더 다른 작품군까지도 대상으로 포괄하여 본고의 논의를 확장시켜나가도록 하겠다.

게 나타나는 것은 곧 실제 생활상과 생활 성찰을 통해 구성된 자의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즉 가사문학이 사회경제사적 구조를 일방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적 대응으로서 어떻게 문학적 자의식이 즉자적으로 또는 대자적으로 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본고는 <남자가>, <남아가>, <여자가>, <여자자탄가>, <여자탄식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논해나갈 것이다.¹²⁾

II. <남자가>, <남아가> 속 소비적 주체로서의 남성 생애와 즉자적 의식

<남자가>와 <남아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남성의 생애를 출

-
- 12) 남성과 여성의 생애에는 공통점이 없기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애당초 동일한 생애를 완벽하게 가지는 인간 개체와 집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작업으로서, 차이점만 논하는 대조와는 달리, 유사점, 차이점 등이 문학적으로 현현되는 근본까지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더해서 이 지적은 “<남자가>는 남성의 생애 중 로망타이즘의 제시에 <여자가>는 여성의 생애 중 규범이념적 삶의 제시에 <여자자탄가>와 <여자탄식가>는 현실적 고난과 갈등의 토로에 각각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여자자탄가>와 <여자탄식가>는 여성의 삶은 왜 불행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 작품들의 비교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는데, 이러한 지적이야말로 본고의 논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남성의 생애는 남성에게 의해서 이념화를 넘어서 낭만화될 수도 있지만, 여성의 생애는 여성에게 의해서 낭만화될 수도 없는 것이야말로 성적 차이가 문학적 차이로도 귀결됨을 보여준다.

오리엔탈리스트에 불과했던 프리드리히 막스 뮐러조차도 하나의 대상만 논하는 것은 그 하나의 대상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본고의 목적은 작품 산출 맥락의 차이조차도 어떻게 젠더화되는지, 그리고 이 젠더화가 오히려 어떻게 여성이 수동적, 피동적 타자에 그치지 않고 변증법적 전회를 이루는지를 병렬적일지라도 세세하게 문구마다 증명하는 것에 있다. 본고의 비교란 단순히 유사점, 차이점을 넘어서 젠더와 가사문학에 대한 법칙을 다루고 있다.

생 → 유년기 → 혼인 → 과거급제 → 출사 → 퇴임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족에게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계(官界)로 나아가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오르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이 일생의 이상향이었다. <남자가>와 <남아가> 또한 그 순서에 따라서 남성의 생애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남자가>와 <남아가>에서 남성이 출생하고 과거를 급제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장안의 벗남녀여 이너말삼 드러보소 / 부모계 싱혹하고 신명 기복녹타니 / 교육 갖흔빅명이며당스 갖흔독순일다 / 황황이우남음성 표호가파람보고 / 낭낭이웃는 형모 초목이화창하다 / 연합봉구 가춧스며 산미월익 괴이하다 / 괴성정기 부열이요 산악총명 신기로다 서울기별 빗비와셔 슈삼비을거후르고 / 춘당덕의 알성이라 / 오늑인이 급히오니 호조하인 정초로세 / 혜청분야 붓시로다 편편주옥 금슈로다 / 평싱직조 다혀여셔 슈지한너 정권하니 / 시관편즈 마즌후의 정원사령 방부르니 / 장원급제 예로구나 탐화랑은 동접일다 <남자가>¹³⁾

낙양의 쇼동들아 이 말삼 드러보소 / 신명기 복녹 타고 부모기 싱혹하니 / 준수흔은 형용이요 청명흔은 미목이라 / 낭낭이 웃는 형모 초목 화창하니 / 연합봉안 ㄹ자시며산미월익 괴이하다 / 위덕이 혁혁하니 봉도화의 휴퇴로다 / 히로 금술 관관흔고 시즉 즈손 선선하디 / 화월 ㄹ튼며너리와괴린긋튼셔랑일다 티평성디 호쇼식이 알성당시 되단 말가 / 수삼비를 거후르고 오늑인이 빗비 오니 / 호조 하인 정초로고 혜청 분야 붓시로다 / 농호연에 먹을 ㄹ라 왕희지필녀으로 / 조밍부의체를 바다 일희예 취지하니 / 문치는 굴원이요 체격은 송옥일다 / 시관 편즈 ㄹ즌후의 정원 스령 방부르다 / 장원낭이 너로소니 탐화낭은 동접이다 / 소화 청삼 상아홀의 무동 어악 도라오나 / 북궐허신 은영이야 고당열친 효도로다 <남아가>¹⁴⁾

13) 장서각본 <남자가>

14) 이상원·김진옥·김미령, 『주해 고가요기초』, 보고사, 2009, 89쪽.

<남자가>는 장안의 벗님들을 호명하면서, <남아가>는 낙양의 소동들을 호명하면서 시작된다. 두 작품 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성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로부터 받은 복록을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해 출세할 운명임을 암시한다. 그 뒤에 이 남성은 삼오 청춘에 혼례를 치르고 알성시(謁聖試)에 응시해 급제하게 된다. 서사(序辭)에서부터 예정되었던, 출세할 것이라는 남성의 운명이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다.

그 후에는 남성의 관직생활이 이어진다. 이 남성은 승정원 주서부터 한림 학사, 사헌부 지평, 호조참판, 관찰사, 이조판서, 우의정 등의 온갖 요직들을 다 거친다. 중앙직부터 지방직까지 관직 생활을 하면서 거쳐가야하는 관문들을 지나면서, 남성은 그야말로 입신양명하는 생애를 누린다.¹⁵⁾ 이렇게 화려한 관직생활의 끝은 영예로운 퇴임이다. <남자가>, <남아가> 모두 결사(結辭)에서 남성의 관직에서 물러나며 마무리된다.

봉조차의 휴퇴하니 그린이며 난봉이라 / 팔즈도 무흠하니 성덕의냥필이요 / 오복이 구전하니 교목의 세신이라 / 어화 당부싱어세하여 일싱헝낙 이러
헝세 <남자가>¹⁶⁾

위덕이 혁혁하니 봉도화의 휴퇴로다 / 히로 금술 관관하고 시즉 즈손 선선헝티 / 화월궂튼 며느리와 그린궂튼 셔랄일다 / 새 그린 집핑이에 대삿갓 되롱이로 / 압논의 물을 보고 뒤피회 나물 키여 / 낙대를 드러 메고 전계의 느려가니 / 흥노는 집이 되고 빅구는 벗이로다 / 남하의 뛰는 국화 놀니장스 아니런가 / 합너예심근미화셔호쳐스 로라왔너 / 신도쥬를 취헝고셔 빅가정의드러가니 / 글즈 그릇 셔직이오 고앙고양 도랑일다 / 팔즈는 무흠하고 오복 구전하니 / 교목의 세신이라 성덕 양필이며 / 상오와 저문 빗치 회감이 되어서니 / 우양 구제 음식이야 당남 츠즈 효봉이

15) 박연호, 앞의 논문, 2008, 280쪽.

16) 장서각본 <남자가>

오 / 금슈 나릉 의복이야 데부 데너 효도르다 / 년인접죽 모호고셔 니효봉우
청흐야셔 / 취포흐는 즐거움과 빅슈지년누리저다 <남아가>17)

다소 소략한 <남자가>에 비해서 <남아가>의 서술이 좀 더 상세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두 작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가>에서도 <남아가>에서도 퇴임한 남성은 그저 혼자서만 부귀영광을 누리던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를 이어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가문과 문벌이 사족 개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유교사회에서 개인의 출세는 반드시 이 가문과 문벌의 영화로 이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남자가>와 <남아가>는 사족의 남성 생애에 대한 유교적 이상향, 유교적 생애관을 전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선행연구사를 검토하면서도 살펴보았듯이, <남자가>와 <남아가>가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 작품들이 중간계급의 유흥적·소비적 지향성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와 <남아가>, 이 두 작품들에는 틈틈이 남성의 관직생활과는 무관한, 유흥과 놀이에 대한 서술들도 자주 나타난다.

친신희던 보두군관 귀예디여 흐는말이 / 엇그제 가든창 삼남동의명기라데
/ 두어친구엽질너밤화류가엇더흐고 / 선전뒤김흔골의 평티문니그집일네
/ 다홍부치 치면흐고 곤기침의 드러가니 / 늦춌디 이불상의 규벽흐니 네로
구나 / 옥식누비 삼회장의 슈화방쥬 남치마로 / 손님보고거허홀제 위선
향취 반잡더고 <남자가>18)

호협즈 평싱 성벽 준마늘 죠히 너여 / 빅설마즈류마 청노시 흑버시를
/ 홀연원의들니고셔십즈가에 모라시니 / 오롱협스 모양이며 야원유직 슈
단일다 / 친신희던 포도부장 귀예 다여 흐는 말이 / 엇그제 굿 은 구즈

17) 이상원·김진욱·김미령, 앞의 책, 2009, 107~109쪽.

18) 장서각본 <남자가>

삼남 등의 명길더라 / 두어 친구 엮집너서 밤화류가 엇더흔고 / 선전 뒤
집흔 골의 평대문이 그 집일네 / 시주의는 뉘 찰흔노 잡소리는 황일청이
<남아가>¹⁹⁾

위의 인용문은 <남자가>와 <남아가>에서 밤화류를 다룬 구절들이다. <남자가>에서 뒷골목 유곽 기생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는 보두군관으로 중인계급이다.²⁰⁾ <남아가>에서는 화자는 자신을 호협자라고 칭하는데, 이 호협자는 왈자, 즉 중간계급에 속한다.²¹⁾ <남자가>와 <남아가> 모두 전체적으로는 사족 남성의 생애를 다루지만, 부분적으로 중간계급 남성의 생애도 다루면서, 그 생애 속에 포함된 소비와 유흥의 순간들까지도 서술한다. <남자가>와 <남아가>는 사족 남성이 갈구하는 유교적 생애관과는 다소 다른 중인계급의 세속적 생애관을 보여준다. 사족의 유교적 생애관과 중간계급의 세속적 생애관의 착종은 조선후기가 근본적으로는 유교 성리학 사회의 구조가 유지되지만, 그 구조 속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경제사적 변모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남자가>에서는²²⁾ <한양풍물가>처럼²³⁾ 한양의 유흥문화를 주도하는 중

19) 이상원·김진욱·김미령, 앞의 책, 2009, 99~100쪽.

20) 박연호, 앞의 연구, 2008, 270쪽.

21) 이상원, 앞의 연구, 2010, 234쪽.

22) “들보의 고은 제비 삼월삼일 하례흔니 / 장악원의 가즌히적 용호영의 별시면을 / 녹도화립 세초의와 빅마금안 청나귀라 / 압뉘으로 세우고셔 빅화원을 츠자가니 / 고을시고 흥도화야뉘게아당빋너시며 / 썰기 썰기 진달넌요 나모나모 흥화로다 / 프른실은 버들이요 누른시는 췌꼬리다 / 아리싸온 빅니화는 뉘게 즘랑 빋너느냐 / 춤잘 췌는 침선비요 노릭 묘한 기너로다 / 흥금장을 췌쳐넌고 칠회병을 둘러시며 / 시조의는 뉘 찰흔노 잡소리난저군일다” 장서각본 <남즈가>

23) “다흥상모 긴북칠다 각식기싱 드러온다 / 예스로은 노름의도 치장이 놀남거든 / 허물며 승전노름 별감의 노름인디 / 범연이 치장허랴 어름갓튼 누른전도 너의 녀 침선비 며공조라 헤민서며 / 늘근기싱 절문기싱 명기동기 드러온다 / 설만장안 학정흥흔니 외로울스 일점흥이 한손으로 머리밧고 아미를 반즘숙여 / 우조라

간계급의 남성들이 가곡과 잡가, 시조 등을 향유하는 모습도 그려내는데,²⁴⁾ 이는 이 작품들이 잡가, 시조를 향유하는 중간계급 남성의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가>는 서사와 결사에서는 사족 남성의 생애를 다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중간마다 사족 남성 외의 다른 계급의 남성 생애까지도 부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자가>와 <남아가>의 다면적 성격은 계급론적 구조에서의 열외인 여성조차도 남성 생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혼례복식부터 동상례 음식, 삼월삼짇날의 절기음식을 나열하며 시각, 미각,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적 물상의 제시, 풍류와 풍속 및 유희적 놀이의 묘사 등은 여성들이 <남자가>, <남아가>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준다.²⁵⁾ 다만 여성 향유층의 존재를 완전히 확정지을 수는 없으며, 그 존재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여성 향유층이 <남자가>, <남아가>를 읽었을 때에 이러한 남성의 생애에 동경과 질투, 동조와 반감 중 어떠한 감정들을 느낄지에 대한 고려를 작품 원문에서 찾아보기란 힘들다.²⁶⁾

실상 <남자가>와 <남아가>는 사족 남성의 생애를 다루면서도, 중간계급 남성의 문화적 욕구를 다루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족적이며 완전무결한 것으로 다룬다. <남자가>와 <남아가>에서의 남성이란 태어나면서도 자라면서도 과거에 급제하면서도 중간계급처럼 놀면서도

계면이며 소용이 편락이며 / 출면곡 처스가며 어부스 상스별곡 / 황계타령 미화타령
 좁가시쥬 듯기쥬타 / 춤추는 기칭드른 머리의 슈건미고 / 웃영산 느즌춤의 중영산
 춤을모라”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24) 박연호, 앞의 연구, 2008, 275쪽.

25) 정인숙, 앞의 연구, 2013, 273~274쪽.

26) 마르크스가 낭만주의와 배금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의 상이하게 현현되면서도 상응하며 작동하는지를 논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남자가>의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문학사적 성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사회경제사와 문학사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이 정도의 소략한 서술로 마치고 다음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퇴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달성하고 획득하는 긍정적인 자발적 주체처럼 그려진다. 이 자발적 주체는 이념을 넘어서 낭만화된, 이상화된 존재로서 그려진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논했듯이 이러한 자발적 주체란 실상 자기 자신의 의지, 선택, 확신에만 함몰되어 타자에 대한 인식에는 둔감할 뿐이다.

즉 <남자가>, <남아가>에서의 남성의 출생부터 퇴임까지를 다룬 유교적 생애관이나 소비와 유희을 즐기는 주체로서의 도시적 생애관도 모두 다 즉자적 의식에 머물러있다. 이 <남자가>, <남아가>에서의 남성은 모든 행동의 주체임과 동시에 그 행동의 결과를 온전하게 소유하는 주인으로서 존재한다. <남자가>와 <남아가>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사적 변화를 담아냄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으로 구성된 사회와 경제 밖의 또 다른 일상적 영역에서의 생애를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그 생애와 자신들의 생애가 얼마나 다른지도 자각하지 못했다. 결국 <남자가>, <남아가>에서의 사회경제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남성만의 내부적이며 피상적인 관찰에 그쳤다.

Ⅲ. <여자가> 속 여성 생애와 복속의 자발성

<여자가>는 상술했듯이 『철성문고』에 실려있는 작품으로 <사군은곡>, <충신가>, <열녀가>, <효자가> 등과 함께 실려있으며, 그 작자는 남성 이학열(李學說)이다. 이학열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그가 남성이었던 점만큼은 분명하다. <여자가>는 유교 이념을 주지하며 교육하는 <사군은곡>, <충신가>, <열녀가>, <효자가>와 같이 여성에게 유교 이념에 걸맞는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주지시키며 교육시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을 도덕윤리적으로 훈계하는 가사를 계녀가(誡女歌)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도 계녀가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자가>에서의 여성 훈계란 여성 생애 서술, 그리고 여성 생애의

남성 생애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자가>는 서사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의 삶이 상이하게 달라짐을 드러내면서 시작된다.

男子女子 나울적에 父母功力 一般이라 / 男子들은 글배우니 古今禮法 절노
아네 / 女子들은 글없으니 前後事를 잊지알라 <여자가>²⁷⁾

그 이후에도 <여자가>는 반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애가 어떻게 긍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른지를 끊임없이 주지시킨다. 여성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²⁸⁾ 자라서도 아버지, 남편, 아들을 좇을 뿐,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에서의 여성 생애란 남성 생애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즉 여성이란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설계하거나 계획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여성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동생에게도 온순해야하는데,³⁰⁾ 이는 곧 여성은 부모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생각과 무관 할지라도 혼인조차도 부모의 지령에 따라서 해야하며,³¹⁾ 혼인을 하고 나서

27) 임기중, 앞의 책, 2005.

28) “여보시오 編髮님네 自從至終 들어보소 / 五歲前은 모르려니와 十歲조차 그럴소나
針工이면 질재제와 女子道理 勤히하소 / 父親승도 들으려니와 母親教導 託心하소”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29) “三從禮法 들어보소 編髮時에 아바쫘고 / 出家後에 男便쫘고 夫死後에 아들쫘네”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30) “十五歲를 지낼적에 緣故업시 出入마소 父母말슴 내실적에 소래나즉 應對하소
同生들과 말할적에 溫恭으로 相論하소 / 말올하며 웃을적에 입엿니를 뵈지마소”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31) “十七歲를 넘어서서 十八歲가 되었구나 / 父母님의 指婚대로 出嫁인들 아닐소나
/ 저의뜻에 不습하나 父母승을 어길소나”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는 남편과 시부모의 소유물이 된다.

媳집간지 三日만에 옷벗고 벽에내려 / 媳便家道 엇디한지 물을나니 怪異하다 / 媳어머니 흥을볼까 同婿님네 웃을세라 / 가매걸고 羹湯할제 千萬가지 생각이라 / 媳父母의 食性물나 媳누의게 맛을뵈네 / 床답노코 생각하니 本家에서 怪異하다 / 食床들나 어색이오 안들나 怪異하다 / 머뭇머뭇 망서리다가 죽다시피 床을 드네 / 하루이틀 지낸後에 첫날에서 熟手하다 / 媳同生네 낫바할가 男便님네 怒할세라 / 안의일과 밧게일을 時刻인들 專主하라 / 한두해를 지낸後에 媳家處事 該博이라<여자가>³²⁾

시집간 여성은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남편 등 시댁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여자가>는 여성이 점점 시집살이 살림에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床’을 들지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들게 되며, 그렇게 낮익은 일들에 익숙해지면서, 가사노동에 며칠을 보낼수록 익숙해지고 몇 해를 보낼수록 박식해진다.

여기서 여성은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결정하고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여성은 유흥과 소비는커녕, 노동에만 종사하며, 그 노동의 성과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들과 딸을 낳고도 여성은 자녀에게 종속되는데,³³⁾ 이는 자녀들이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혈육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속한 가정은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인 남편으로도 구성되어있다. 남편은 여성이 시댁과 자녀에 종속되게 한

32) 임기중, 앞의 책, 2005.

33) “팻을팔아 고기사고 줍쌀주고 님쌀바다 / 白飯善饌 여투어서 老親前에 供養하며 / 입에마즌 飮食으로 日復日에 爲業하소 / 아들쌀을 나아노니 일기애기 그지없네 / 어린子息 젓달나고 자란子息 밥달나네 / 椿堂大人 늙어오고 萱室專姑 無力이라 / 米飯대려 자리부飯 책면무쳐 點心이라 / 家셔도난 琴瑟인데 世事貧窮 워할소냐”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동기이자 근원이며, 여성 생애의 노동과 성과를 가져가는 최종적인 소유자이다. 그렇기에 <여자가>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할 것을 주문한다.

여보시오 婦人님네 넷날말씀 들어보소 / 會稽양의 賈臣妻의 苦生말씀 不祥하다 / 男便이라 하는이는 글工夫에 盡力이라 / 月子팔아 晝冊사고 指環팔아 筆墨사네 / 이웃방하 쌀을씩거 보리밀로 삭을빻네 / 雷聲하고 흐린날에 삭바다에 汨沒이라 / 朱買臣의 工夫보소 밤낮업시 潛心이라 / 소낙비에 날기명석 썬난줄을 몰났더라 / 男便背反 웬일인고 勞而無功 되엇더라 / 글工夫가 이리한데 天道인들 無心하라 / 春堂臺上 科擧날에 壯元及第 하엿더라 / 二道道伯 하엿을제 夫婦相逢 夢外로다 / 차마情分 니즐소냐 雙轎馬로 八字로다 / 긴목숨을 재촉하니 恩反爲讎 되엇더라 / 不常하다 不常하다 賈臣妻가 不常하다 / 二三年을 참앗더면 百年同樂 아닐는가 <여자가>³⁴⁾

<여자가>는 남편을 버린 주매신(朱買臣) 아내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노동과 성과를 남편에게만 바쳐야한다고 말한다. 전한시대에 주매신이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가난하자 그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갔는데, 이후 주매신은 그의 전 아내가 살던 회계의 태수가 된다. 그러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아내는 자결하게 된다. <여자가>에서의 여성 또한 주매신의 아내처럼 남편을 버리기보다는, 남편 곁을 지키며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셈이다.

<여자가>는 여성의 생애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공부와 과거 급제라는 남성의 생애 일부도 함께 서술하면서, 그 남성의 생애 일부에 여성의 생애가 귀속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심지어는 남편이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다.

34) 임기중, 앞의 책, 2005.

男便죽어 初氷後에 安葬하나 一念이라 / 擇地擇日 하여노코 返葬코저 사람
 없어 / 지게메고 호미들고 男便무덤 차자가서 / 치매귀를 건준차고 소매길
 을 거두매네 / 兩손으로 호미들고 破土開墳 하였더라 / 이내몸은 살았는데
 郎君님은 웨죽었노 / 살을보니 黃土되고 뼈를보니 白骨이라 / 눈물흘녀
 옷깃젓고 슬픔겨워 목이쉬네 / 月光보니 黑雲이오 山色보니 黃霧로다 /
 小殮布로 殮囊하니 지게다리 喪輻로다 <여자가>³⁵⁾

남편이 죽은 후에 <여자가>의 여성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애도한다. 아내는 남편의 무덤에 가서 그곳을 파헤치며 남편의 시신과 다시 만나려고 한다. 죽은 이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기괴해보이지 않게, <여자가>는 이 장면을 남편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의 행동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 하얀 뼈만 남은 남편의 시신을 보면서 여성은 자신만 살아남은 슬픔을 한탄한다. 달빛과 산세조차도 어둡고 우울한 것은 결국 남편을 향한 여성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여자가>에서의 여성은 남편이 죽어서도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남성이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자 이 여성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칼까지 꺼내든다.³⁶⁾ 여성은 열녀로 남기 위해서 자신을 해치기까지 한다.

<남자가>에서의 남성 생애가 퇴임이라는 영예로운 사회적 생애의 끝으로 마무리된다면, <여자가>에서의 여성 생애란 그 자신의 영예로운 사회적 활동을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만을 위한 헌신으로만 마무리된다. 이후에도 <여자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절을 더럽히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한다. 이는 부모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35) 임기중, 앞의 책, 2005.

36) “허리굽어 지고나니 슬프고도 깃브고나 / 開封탁막 다달으니 해다가고 勞苦로다 / 主人더러 房을빌고 一夜經過 定할너라 / 主人놈은 무삼일노 손목잡아 잇그는고 / 自結하여 죽을나니 郎人骸骨 어데들고 / 팔은비록 내팔이나 累한팔을 무여두라 / 한치칼을 빼어들고 팔을싣혀 던졌더라 / 이런婦人 불작시면 烈女貞節 아닐소냐” <여자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여보시오 女便네들 또한節句 들어보소 아반님의 근심소래 어마님의
 우는소래 / 兩翼禽도 雌雄잇고 四足獸도 伉侶잇네 / 父母님께 恨嘆말삼
 홀노늬어 不常하라 / 禮道말삼 같으면은 父母말삼 거슬소냐 / 사람이라
 생것다가 禽獸行實 조출소냐 / 累한말을 들었스니 귀를두어 무엇하라 /
 드는칼을 빗기들고 귀를베어 던졌더라 / 이런行度 불작시면 이도
 또한 烈女로다 / 世間人倫 事事中에 忠臣烈女 最貴로다 / 男子되어 忠臣되고
 女子되어 貞烈되소 <여자가>³⁷⁾

<여자가>의 결사에서 부모조차도 여성에게 홀로 늬어 불쌍하다며 재가를
 은근히 권한다. 그러자 이 여성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동물처럼 살겠냐며
 누한 말을 들었으니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자해하
 는 것이 열녀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로서 <여자가>에서는 제시된다.

<여자가> 서사에서도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가 부분적으로 비교되었듯이
 결사에서도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가 간단하게라도 언급되며 비교된다. 남성은
 충신, 여자는 정조(貞操)를 지키는 열녀로 살아야한다는 이 <여자가>의
 결사는 서사와 상응하면서,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를 대비시킨다. 그러나
 <여자가>에서는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를 본격적으로 대비시키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여성 생애가 남성 생애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한지조차도 제대로
 각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순종, 복속, 열녀로서의 행실이 다 여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자가>에서 인정되는 여
 성의 자의와 의지란 오로지 남성을 따르며,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뿐
 이다. 여성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식조차도 자신의 선의에 따라서 가져야만 한다.

<여자가>에서의 여성 또한 <남자가>에서의 남성처럼 즉자적 의식으로

37) 임기중, 앞의 책, 2005.

자신의 생애를 구성한다. <남자가>에 나타난 남성의 즉자적 의식이 적어도 사회경제사적 변화를 인지하며 소비와 유흥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주인 의식을 자각했다면, 이 <여자가>에 나타난 여성의 즉자적 의식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는다. 즉 시대라는 대타자를 인지하지 않기에 <여자가>에 나타난 여성의 즉자적 의식이란 사회경제사적 변화와 시대상을 인지한 <남자가>에 나타난 남성의 즉자적 의식보다 더 동어반복적이다. <남자가>에서의 사실과 남성 생애보다도 <여자가>에서의 사실과 여성 생애가 더 친편일률적으로 남성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³⁸⁾

그리고 이 <여자가> 또한 실상 계녀가류 가사들처럼 남성이 창작한 것이다. 즉 이 <여자가>는 남성이 여성에게 바라는 기대에 기반한 생애를 다룬 것이다. 여기서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대립항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종속항으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는 제대로 된 대비 대상이 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여성이 창작한, 여성층에게 향유된, 여성 생애를 다룬 가사작품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애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38) 다만 계녀가류 가사에서 사족 여성들은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직접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적 변화에 적응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조자현, 「계녀가(誠女歌)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 복선화음가(福善福淫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계녀가류 가사의 작자도 사족 남성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복선화음가>의 주요 작자층과 향유층은 여성으로 보인다. <여자가>는 여성층에서 향유된 계녀가류 가사보다도 봉제사 접빈객을 강조하는, 남성층에서 창작된 계녀가류 가사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작자의 성별이 작품 내 사회경제사적 변화의 반영 여부조차도 결정짓는 셈이다.

IV.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 속 이중의 부정과 대자적 의식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의 공통점은 두 작품 다 여성이 지었다는 것이며, 이는 여성 생애를 다룬 가사작품 <여자가>와는 결정적으로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여자 탄식가>는 김순자라는 실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성 작자가 썼다는 점은 단순히 여성 생애의 진실성과 감수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을 떠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를 완전히 다르게 다루도록 만든다. 이는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의 서사에서부터 확인해볼 수 있다.

오흠다 여자들아 이내말슴 드어봐라 / 제류부디 천타마라 만물중이 귀히
나라 / 남자로 못디이고 여행된이 급분한다 / 부모혈육 타고나서 사람마다
섭섭하다 <여자 자탄가>³⁹⁾

어와우리 동유들아 여자탄식 드러보소 삼강영 오류중에 남여유별
범을지여 / 오천만연 지너도록 이법을 기리쫓차 / 남자길너 취부르고 여자
길너 출가하이 / 싱남싱여 세상스람 인간자미 쫓컨마난 / 여즈된 이너마음
암암스지 싱각하니 / 남즈의 죠흔팔차 이달코도 부럽드라 <여자 탄식
가>⁴⁰⁾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는 서사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태어나는지,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지를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여자가>에서 화자가 여성들을 ‘婦人’이라고 호명했다면, <여자 자탄가>의 서사에서 화자는 ‘여자들’이라고 호명하면서, 그들의 성적

39) 임기중, 앞의 책, 2005.

40) 임기중, 앞의 책, 2005.

정체성을 각성하길 주문한다. 남성들을 배제하며 여성들끼리의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길 기도하는 이러한 화법은 규방가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⁴¹⁾ 이는 곧 <여자 자탄가>가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인지하고 자각하길 원하는 의도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증명한다.

<여자 탄식가>의 화자도 <여자 자탄가>의 화자처럼 같은 성별인 여성들끼리 자신의 생애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문제를 인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자’들을 호명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여자 탄식가>의 화자는 서사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애가 다를음을 논한다. 이 화자는 삼강오륜 때문에 남녀 간에 분별이 생겨서 이 법에 따라서 남성은 부인을 얻고 여성은 시집을 가니, 사람이 태어남에 남녀 간 차이가 없지만, 그 팔자에는 차이가 있으니, 남성의 팔자가 부럽다고 말한다.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는 여성 생애를 남성 생애와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남성 생애에 비해서 부족한 것,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 부족함과 열등함에 순응하도록 주문했던 <여자가>와는 달리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는 이 부족함과 열등함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비록 이 불평등함을 완전히 극복할 대안을 제시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불평등함에 한탄하고 분노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오새 육칠식을 부모압이 구살디고 / 남자는 귀여히고 여자는
 거너흠은 / 고인이 겁훈이라 십식이 넘운후이 / 여자홀일 비와보자 부모압
 해 효양하고 / 동기간이 우익잇고 늘근스름 공경하고 / 이웃사름 화목하다
 잇팔광음 닷쳤으나 / 금엇을 못홀소냐 여자들아 이른흔계 드러바라
 오흠다 / 우리여자 남자로 못딤이고 여자로 / 대엿으니 극분히 그지업다
 싱각사로 <여자 자탄가>⁴²⁾

41) 최상은, 앞의 논문, 2018, 222쪽.

42) 임기중, 앞의 책, 2005.

칠팔세 비운글을 십오세 통달하여 / 낙슈상 청운교에 단계화를 찍거귀고
/ 문무관 초입스로 입신양명 호을적에 / 교리슈찬 승지당상 참의참판 영돌
영을 / 계제보고 활유보아 환복디로 드흔후에 / 절나감스 충청감스 남북병
스 통계스을 / 외임으로 흠이스라 호스스치 극진하니 / 남즈몸이 되었드면
긴들안이 죠홀손가 <여자 탄식가>⁴³⁾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 모두 서사 뒤에 여성 생애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남성 생애를 다룬다. <여자 자탄가>의 화자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얼마나 더 자유롭게 살기 힘들지를 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이 가사의 향유층인 여성들에게 부모를 봉양하라는 훈계를 당하는 것은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해서이니,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여자 자탄가>의 화자는 여성들은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해서 혼자서 방안에 틀어박혀 인생을 병과 잠으로 낭비하니 오래 산다고 한들 활동하는 시간이 30년에 불과하며,⁴⁴⁾ 여성으로서 남성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결국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이러한 생애와 시간, 그 생애와 시간 속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조차도 다 부질없고 허망하다는 허무주의를 드러낸다.⁴⁵⁾ 즉 <여자 자탄가>의 화자는 단순히 남성이 되지 못해서 한탄하

43) 임기중, 앞의 책, 2005.

44) “우리여성 두문불출 깊이안자 일천간장 / 다죽인다 덕옥이나 싱각이라 골물이 / 엇더하랴 그러나마 그골물은 인간이 / 소탁이라 눈앞이 구살디고 남혼영가 / 갓추우니 싱각자면 여계있다 그러나마 / 일평생을 풍풍우우 다격었너 극분하고 / 통분하다 여자유행 극분하다 초로갓튼 / 인싱들아 나이말슴 드러보소 백년을 / 산다히도 병든날과 잠든시로 역역히 / 다제하면 숨십해 못디나니 오흠다” <여자 자탄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45) “우리여자 후싱이 남자로다 혼혼새이 / 닳시볼고 우습고도 혼심하다 십싱구살 / 흠지래도 남여병화 엇지디라 근심걱정 / 얼마흐리 해소담락 엇지흐리 초로갓흔 / 인싱들아 낙기망망 노라보자 험한일 / 너무말고 근심걱정 너무마요 즐사라도 / 북망이요 못사라도 북망이요 귀하고 / 서름마요 존비귀천 흥망성쇠 물래갓치 즐도

는 수준을 넘어서, 남성으로 구성된 세계와 사회 전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이 세계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여성의 처지에 몰입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이 세계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대비되는 이방인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방인으로서의 규정은 이 세계와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 세계와 사회 속에서 동어반복적이며 자급자족적인 쾌락에만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와 사회의 부당함을 성찰하기 때문이다.

<여자 탄식가>의 화자도 여성 생애에 비해서 남성 생애가 얼마나 더 우월하고 자유로운지를 <여자 자탄가>보다도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 위의 인용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화자는 남성이 글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한 뒤 관직에 올라 승승장구하는 남성의 모습을 다루며, 남성으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든 좋을 것이라며,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현실을 한탄한다. 그 뿐 아니라 <여자 탄식가>의 화자는 남성이 기생들을 끼고 사방으로 놀러 다니는 모습이라든지,⁴⁶⁾ 노름이나 일삼으며 노는 모습 등도⁴⁷⁾ 부러워하면서, 여성은 남성처럼 즐길 수 없음을 한탄한다. <남자기>에서는 유교적 출처론으로부터 벗어나 남성이 사회경제사적 변화를 반영하며 자신의 생애를 주체적으로 즐기는, 소비적·유흥적 주인의식을 가지는 모습이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돈다” <여자 자탄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 46) “조달공명 못허거든 쏘흔가지 조홀손가 / 호질남아 디장부로 오입직을 버절삼아 / 소연풍치 옥골남이 시주귀을 버절삼아 / 춘풍삼월 추구월아 든풍구경 쫓구경을 / 곳곳마다 명승지에 그어디로 가자든고 / 금강산 만이천봉 기암괴석 드분후에 / 쫓겨누 경포티난 관동팔경 노라잇고 / 평양기생 전취기생 식향으로 노라보고 / 도쳐상봉 만너보니 일면여구 친구로다 / 퉁평연호 간곳마다 히히낙낙 조흔세월 / 남자몸이 도였으면 긴들안이 조홀손가” <여자 탄식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 47) “그릇치도 못할진딘 쏘흔가지 조흔노름 / 향중친구 도너친구 우슴웃고 반겨만너 / 압스랑에 바둑장기 뒷스랑에 화투골픽 / 동작마에 기장취회 셋작마에 탁주신양 / 주야장청 모여안즈 흥황잇기 노름하니 / 남즈몸이 되얏스면 긴들안이 조홀손가” <여자 탄식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가지는 것으로 긍정되었다. 그러나 <여자 탄식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남성의 성적 본질로서 간주된다. 여기서 남성은 본래 재화와 물건을 소유하며 이를 당당하게 소비만 하는, 그리고 이 소유와 소비를 당연시하며 그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자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서 어찌서 규방가사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사적 변화를 자신의 생애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성찰하며, 그 성찰을 계급적 지향으로 연결짓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사회경제사적 변화와 그로 인한 계급적 지향이 그들 자신에게 체감되는 현실이었다면, 여성에게는 그 변화와 현실이 남성만이 온전히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자탄가>에서나 <여자 탄식가>의 여성 화자들은 모두 이 사회경제사적 변화나 계급적 지향과는 무관하며 무심하기까지 하다. 결국 그들에게 이 사회경제사적 변화나 계급적 지향은 남성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문화인 가사문학이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적 변화나 계급적 지향을 담는 것 또한 지극히 남성적인 현상인 셈이다.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 여성은 남성과 자신을 비교해야만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파악하며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여자 자탄가>의 결사보다도 <여자 탄식가>의 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자 자탄가>의 결사에서는 <여자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다시금 순종적인 도덕윤리를 따르기를 권한다면,⁴⁸⁾ <여자 자탄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남성 생애를 다루는

48) “여보시오 여자들아 잊이마시 / 잊이마시 부모언공 잊이마시 비와보자 / 배와보자
 착흔행실 비와보자 듯지마시 / 듯지마시 악흔말을 듯지마시 노지마세 / 노지마세
 우리인칭 노지마시 청년이 / 노든경이 암암하고 삼삼하다 굶이굶이 / 지린회포
 늘로혀 다물 홀고 고향은 / 절백이요 타향막지 늘지로다 원수로다 / 구범이 원수로
 다 녹음방초 조흔곳이 / 피꼬리 노래하니 처량흔 마음으로 / 자탄가 지었노니 무심하
 게 보지마옵시사” <여자 자탄가> 임기중, 앞의 책, 2005.

<여자 탄식가>의 경우에는 여성이 된 것은 죄이기에, 아예 남성으로 살자면서 작자와 화자, 향유층이 공유하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이 지닌 가치를 부정해버린다.

여자몸이 죄가되어 유구무언 말못하고 / 구곡간장 타난불열 속치부만
하자하니 / 스스이 심각하니 그안이 분할술가 / 즈드가 썸에나마 남자흔변
되어보면 / 주점찾는 저남자는 문난말도 디답업고 / 제라장흔 남즈라고
오날보고 너일봐도 / 엽눈으로 빗식보아 여자라고 업신여겨 / 속덕속덕
홍얼보아 압시하고 능별하니 / 더욱분히 못살깃드 몇푸는치 안된남자
/ 가소롭고 갓잔터라 아모리 여잔들스 / 그만남자 양두허리 얼금벌금 키큰
남자 / 키만잔득 커먹엇지 알분시런 성민노장 / 남작남작 말만하디 어리송
송 문서씨난 / 거질불도 일술너라 통스흔권 못이르고 / 스셔삼경 어이알며
오원칠원 못짓거던 / 치부표척 어이허며 제이름도 모르거른 / 죠상세계
어이알며 흔집닷못 모르거른 / 문서치부 어이허리 이팔청춘 절문씨예
/ 허도세월 무삼일고 곱방씩을 엮히끼고 / 이집저집 당기면서 셔당방에
낫잠즈고 / 차작بات기 일슈하고 놀기만 힘을씨고 / 남자형세 그르하고 여자
형실 흥을보니 / 야속하고 가련히라 여자탄식 드러보소 / 남여을 물논하고
셔로흥너 부디마오 <여자 탄식가>

그러나 이 부정은 여성성을 부정하고 남성성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 남성성의 치부와 추태를 지적하며, 그 치부와 추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긍정하는 세계와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성으로서의 자아가 잘못되었기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긍정하기 위해서, 그 자아 외의 타자인 남성과 그 남성으로 구성된 세계와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여자 탄식가>에서의 남성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여성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한탄은 실상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세계와 사회에 대한 갈구로써, 이중의 부정인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 자타가>, <여자 탄식가>에서의 여성 화자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과

여성 생애를 긍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 생애와 남성 생애를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성적 대응항이자 타자인 남성이 되기를 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진정 남성성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 남성성으로 구성된 세계와 사회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남성이 되기를 원하는 척 가장할 뿐이다. 그리고 이 가장은 진실된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중의 부정으로 처음에는 여성인 자신을, 그다음에는 타자인 남성을 부정한 뒤 자신을 대자적으로 인식하는, 대자적 의식으로 귀결된다.

여성이 자신을 교육과 출세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해야 국가와 세계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가사문학에서 표출된 것은 개화기의 일이다. 비록 사회, 국가, 시대라는 다소 남성적 주제를 통해서 여성은 자신도 남성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⁴⁹⁾ 그 시기에 이르러서야 여성은 자신의 성적 대립항인 남성과 그 남성으로 구성된 세계와 사회, 그리고 국가로까지 자신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바꿀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남성적 현상을 넘어서 여성 중심의 성적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은 좀 더 후대의 일이었지만, 적어도 이중의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만큼은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여자 자탄가>나 <여자 탄식가>에 나타난 여성 생애와 대자적 의식이란 여성이 생산자로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를 통해서 소비자인 남성과 어떻게 사회경제적으로 다르게 기능하는지를 각성하기보다는, 남성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욕망에 가깝다. 그러나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는 그 욕망과 욕망의 대상조차도 부당함을 드러냄으로써,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세계와 사회와 마주한 자신을 대면하는 대자적 의식으로 이어진다.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가 축자적으로는 탄식에 불과할지라도, 그 저변의 의식은 이미 탄식과 소유로도 이를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는

49) 최정아, 「개화기 여성 가사에 나타난 여성 의식 고찰」,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31~258쪽.

셈이다.

V. 결론

본고의 논의에 대해서 <여자 자탄가>와 <여자 탄식가>에서는 그저 부러움과 자기부정만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은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론의 여지도 있다.

주체성이란 반드시 자발성, 독립성, 전유(專有)성'만'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가사문학 속 남성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로지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여성조차도 타자화될수록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사문학 속 여성의 남성 및 여성 생애 인식은 근대적·자본제적 주인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주체성을 드러낸다.

본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여기에 있다. 주인의식과 반대되는 시각이 아니라 주인을 오히려 모방하며 또 다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인의식에 따라서 이 작품들을 해석하자면, 가사문학 속의 부러움과 자기부정이란 주체성의 결여, 열등감으로 인한 질투와 시기심, 굴종의 자세 등으로 보이게 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이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투쟁에서 이긴, 인정받은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노예란 자립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한 존재이다. 노예의식이란 노예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의식이며, 자연적 존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리고 그 존재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개별적 노동에 의한 의식이다. 그리고 노동이란 욕망의 억제이자 소실의 보류로서, 사물을 형성하는 행위이지만, 주인의 절대권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노예는 비자립적 존재이며, 노동은 비자립적 행위이다. 그런데 노예는 이 노동을 하면서 사물의 자립성을 직관하게 된다. 사물의 자립성이란 의식 외부의 것이지만, 노예는 그 사물의 자립성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서 자신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발견한다. 복종이 깊이 내면화될수록 이 불안 속에서 의식이 사물을 형성하는 것을 본질적인 자기실현으로 인식하게 된다.⁵⁰⁾

50) 만약 이 불안이 깊이 일상화되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불안에 가끔 젖어드는 수준이라면, 이 의식은 텅빈 자기 고유의 의미에 머물 뿐이며, 그 불안에 대한 부정도 의식 외부에 머물 뿐이다. 청년헤겔주의의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자본제가 끝나게 되리라는 주장, 열강의 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을 받아서 자본제를 타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 논리에 근거해있다. 이 논리는 단계가 없는 형식이 아니라 단계를 설정하고 부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부패한 자를 뱉어내는 단계를 넘어선 부패를 저지르며, 부패하지 않은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단계를 처음부터 탈피하는 탈단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설정한 뒤에 부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사상적 선배인 절대 부패할 수 없는 자가 몰락한 역사적 경험을 감안한 사상적 모색의 결과로 보인다. 탈경계를 주장했던 집단은 주인의식을 취하자마자 절대 부패할 수 없는 자가 몰락할 때에도, 악덕의 지사와 절름발이 악마 같은 부패한 자들이 황제와 왕의 부역자 노릇을 할 때에도, 그 백색테러와 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갈 때에도, 황제와 왕을 추대한 주역은 무시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에게만 황제와 왕이 복귀한 책임을 학문적으로 물었을 때에도 그들은 방관했다. 이 때문에 팡테옹 클럽의 지도자 조차도 절대 부패할 수 없는 자에 비하면 자신은 두 번째 그라쿠스에 불과하다며 반성하기도 했다.(그런 점에서 로마 원수정 등장 책임을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프랑스 제 1 제국 등장 책임을 프랑스의 그라쿠스 형제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또한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행위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유희로서 긍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지적이 주체에 의한 초월과 신비를 지향하며 그 초월과 신비의 전 과정을 소유하려한다는 점에서, 존재에 대한 위기가 피동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주인의식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헤겔의 사상은 저항조차도 사치이며 귀족적으로 '불' 만큼 현실에 절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제기될 때에도 실제로 그도 그 자들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설사 헤겔이 어용학자가 아닐지라도 헤겔조차도 그 자신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황제를 절대정신의 현현으로 과대포장하고 절대 부패할 수 없는 자를 힐난하여 성공한 뒤,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한 지식인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그로 인해서 얻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자신의 일생을 건, 사상적 투쟁의 성과이자 합당한 권리로서 착각할 때에 생기는 사상적 변질은 비극과 소극으로서 사상사에 두 번 족적을

본고는 바로 그 불안의 가능성을 본성으로 치환하고자 했다.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에서의 여성은 사물을 형성하는 비자립적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사물을 이용하는 유흥적 향락으로부터 유리되어있기에 사물의 자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노동이란 복종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복종은 이 가사작품들이 창작되던 시절, 신분과 계급보다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연적 경계로 보이는 성(性)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성은 사물을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가공된 존재로 만들지만, 그 자신도 노동을 통해서 남성에 속박된, 가공된 존재가 된다. 그렇기에 여성은 성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실상 자연적 존재로 남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 권력을 자연적 권력처럼 규정하며 자연적 존재로 남으려하며 남는 척 하는 남성에게 감정과 욕망까지도 속박된다. 그 속박된 감정과 욕망이 물질주의적이라는 점은 그 남성에게 느끼는 부러움과 자기부정이 진정한 자기실현으로서 변증법적 전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자신의 존재조차도 사물로 환원될 수 있는 자의 사물에 대한 각성은 사물을 소유하는 자의 욕망, 그 소유를 감추기 위해서 남용하는 초월 등을 외관상 긍정하나 본질상 부정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한다. 사회적 존재인 여성이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적으로 복종하길 강요당하며 사회적 노동에 종사할수록 즉자대자적 의식 또한 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으로서 작동한다. 모든 사물을 소유한 남성이 도달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소유한듯이 가장할 수도 없는 것을 선택하는 셈이다.

오늘날에도 이 주인의식을 향한 욕망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 주인의식에 따라서 부러움과 자기부정이라는 불안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소유해서 해결해야 할, 잘못된 상태로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⁵¹⁾

남기기 마련이다. 헤겔의 사상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뛰어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그 사상이 포스트모더니즘보다 뒤쳐진 것으로 해석되는 데에는 헤겔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한 사상이 한 사상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상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 사상과 사상가적 생애가 일치되었을 때에만 그 사상을 아는 것이다.

51) 사실 한국만큼 중세부터 현대까지 이 주인의식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한 나라도

최초의 노예제가 여성 차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토지와 자본, 사회경제사적 발전이라는 거시 담론과 여성과 남성의 성별 문제라는 미시 담론은 언제나 결부되어있다. 거시 담론과 미시 담론이란 시각에 의해서 구분될 뿐, 그 구분이 성 차별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사회경제적 존재임을 매순간 자각한다.

<남자가>, <남아가>, <여자가>,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에 이르기까지 가사문학에서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란 독립적이었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남자가>, <남아가>에서의 남성 생애는 여성 생애를

찾아보기 힘들다.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에서 자신의 조상이 본래 한족의 명문가(冠蓋)였다고 주장하던 최치원(최치원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상민의 논의를 참조하는 편이 좋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명나라에 감국(監國)까지 의뢰하러 간 제국의 엘리트 출신인 이색, 이 유학과 지식인들의 지적 후예들이 공맹의 학문을 교조화시키고 기자(箕子)까지 숭배했던 일은 대상이 되는 국가, 학교, 인물의 신분과 성별만 달라졌을 뿐 현대에도 반복된다. 한국사회는 자국주의에 대한 비난조차도 제국의 시선을 답습하는 사상적 태도 보급과 봉건 또는 유사 지주제 강화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아니 실상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한국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국수주의자들의 열성적 찬동과 자유주의자 및 세계주의자들의 맹목적 반감과는 전혀 다른 기제로 작동하며, 그 덕분에 식민지 조선은 제국 일본보다도 자본제 사회에서 상반된다고 간주되지만 실상 상응하는 개인주의와 국민주의를 결합한 문학작품들을 먼저 배출하는, 부르주아 혁명에 적합한 보편사적·문학사적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이민규, 「근대 시기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2016. ; 다만 신채호 같은 국민주의 독립운동가들조차도 정신이나 혼 같이 추상적인 관념어로 국민주의를 설명한 경우들도 없지 않았으며, 그 경우들의 기원은 제국 일본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또한 그 논문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인주의가 국민주의와 상응하기 위해서는 유명인물이 아니라 무명의 개인을 숭배해야하기에, 오늘날 한국의 국민주의가 기형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도 이 지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그 논문의 주지에 대해서, 식민지 조선이 제국 일본보다 더 보편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형태의 문학사적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이야말로 변증법적 발전을 단계설로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인의 보편성을 노예의 개별성으로 부정하고, 그 개별성을 노예의 보편성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는 것도 한계이다.)

깊이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남성 자신의 출세와 소비에만 집중하며, 남성을 스스로 모든 재화를 소유하는 주인으로서 그려냈다. 그렇기에 <남자가>, <남아가>에서 남성의 남성 생애에 대한 인식은 즉자적 의식에 가까웠으며 이는 자신의 성적 대립항이자 타자인 여성에 대한 무시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자가>에서는 남성 생애와 여성 생애를 대비시키기도 했는데, 이 가사작품의 작가가 남성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여자가>에서 여성 생애란 남성 생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 생애보다 열등한 것으로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여성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여성은 자발적으로 남성에게 복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자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감지도 없이 남성은 오로지 자신의 생애를 혼자서 즐기기를 도모했으며, <여자가>에서는 여성은 자신의 생애가 남성의 생애와는 다른 점을 알지만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자신이란 누구인가를 진정 성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 자탄가>, <여자 탄식가>에서의 여성 화자는 남성 생애를 살피며 자신의 생애가 어떠한지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 생애 또한 남성 생애와 함께 평등해져야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가사문학에서 남성 생애를 다룬 작품들과 여성 생애를 다룬 작품들을 함께 논해야만 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지위가 단순히 우열로 나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지위에 따라서 상대방 성과 그 성적 생애를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 곧 그러한 점들이 자신의 생애를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로도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제3의 성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 이전의 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며,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성적 대립항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한다. 그러나 남성은 자신이 사회의 주체라는 주인의 식 때문에 이 여성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서 자신을 사유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출세와 소비적 유흥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여성은 남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와 국가라는 대타자를 인지하고, 이 타자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심지어는 여성 대신 남성이 되고 싶은 소망,

그 소망에 기반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까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부정은 한편으로는 무작정 남성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와 국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 부당함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고 남성이 되고자 하지만, 남성이 부당하게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현실까지도 부정하는 이중의 부정을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대자적 의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사문학에서 여성 화자가 드러낸 대자적 의식이란 남성의 즉자적 의식과는 달리 부정의 어조로 드러나지만, 진정 사회와 국가, 세계와 소통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가 갖는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왜 그 시도가 부정의 어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때에 가사문학에서의 여성 화자가 갖는 목소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52) 결론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반대로 결론이 서론처럼 본론의 요약정리한 것에 불과하니 보완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상반된 지적들이 제기된만큼 그대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 구수영, 「男子歌攷」, 『논문집』 8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 박연호, 「<남자가>에 제시된 조선후기 중간계층의 삶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2008.
-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2016.
-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 이재수, 「女子 自歎歌 研究 : 比較的 考察을 中心으로」, 『동양문화연구』 2,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5.
- 정인숙, 「<남자가>에 나타난 ‘기남자’의 일생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 조자현, 「계녀가(誠女歌)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 복선화 음가(福善禍淫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 최규수, 「<女子自歎歌>의 資料的 實相과 特徵的 面貌」,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 최상은, 「조선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2, 한민족어문학회, 2018.
- Clark Butler, Christiane Seiler, Hegel: The Letter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Abstract

DIFFERENCES IN LIFE PERCEPTION OF MEN AND WOMEN IN
GASA LITERATURE

LEE MINGYU (LEE, MIN GYU)

This study looked at how men's and women's lives are recognized and described in Gasa literature. In <Namjaga>, a man is expressed as a subject of consumption and entertainment while rising socially based on Confucian theory. This reflected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on the contrary, it was possible because men were the owners of society and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n <Yeojaga>, women cannot describe the changes in their lives according to any socio-economic changes, because women were a minority excluded from society and the state. Since this work was written by a male author, while comparing male and female lives, it did not describe how unfair and unequal the female lives were treated, but merely emphasized that women should obey men.

In <Yeoja Jatanga> and <Yeoja Hantanga>, the female narrator finally realizes the inequality between male and female lives, and tries to point out that this is unfair. However, it seems that women are giving up their sexual identity as women in that they want to be like men, but in reality, this was to point out the wrongness of society and the world where only men are treated. It can be said that this double denial shows the

self-consciousness of dealing with women's lives in Gasa literature.

Key Words : <Namjaga>, <Yeojaga>, <Yeoja Jatanga>, <Yeoja Hantanga>, Gyubang Gasa